

인 사 말

추수의 계절입니다. 나의 수확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나누는 이치는 대중을 이끄는 원로 대종사의 공덕과 다를 바 없는 듯합니다. 이 같은 마음에서 종단 대소사에 한결같은 염려와 조언에 언제나 깊은 공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로의장 대종사께서 어느덧 의장의 임기에 다다르게 되셨습니다. 지난 8년여의 기간 동안 부족한 후학들과 종단 현안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근념의 일상을 하루도 놓지 않으신 원로의장 대종사의 헌신과 노고에 종도들과 함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장스님을 모시면서 종도의 나아갈 바를 점검해 오신 원로회의 스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종단은 새로 원로의장스님을 모시고 종단 대소사를 상의해 올리며 선대의 원력과 공심이 이룬 선업과 공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종단 채신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다시 이를 검증해야 하는 등, 일정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은 그 성취의 토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종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은 전년도부터 본격화되고 활성화되어 논산훈련소의 군법당 건립과 승려복지사업 등, 200억 원이 넘는 순수 기부금을 마련하였고, 상시적으로 30여억 원의 기금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대사회사업에 여유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정된 종단 예산으로 각종 목적사업을 집행하였던 어려움과 사안별 긴급 모금 등으로 나타났던 제방의 피로감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며, 특히나 사찰과 스님들이 능동적으로 직접 기금을 출연한다는 사회의 인식 전환은 무엇보다 큰 얻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원로스님들께서도 많은 동참이 있으셨기에 종도의 따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승가복지기금 마련에 더욱 집중하여 원로스님들은 물론 종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려복지에 기틀을 완성하고 그 집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수범으로서 출현하신 애종의 심정은 후학들이 사표로 삼아 매사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단 원로로서 종도를 지도해 주시고 법체 청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로운 원로의장스님을 모시고 원로스님들께서 지혜의 혜안으로 종도들에게 수승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